

영광법성포단오제 12일 '난장트기' 공개행사로 서막

보부상 길놀이·제국·고사·난장공연 등 단오제 성공 기원 6월7일~10일 법성포 뉴타운서 본행사...풍성한 공연·체험

'바람따라, 풍류따라' (海風樂風)를 주제로 내건 2024년 영광법성포단오제가 난장트기 공개행사로 서막을 알린다.
'난장트기'는 과거 전국 각지의 보부상들이 단

오 행사가 열리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설치했던 '난장기'에서 유래된다. 상징기인 난장기가 설치된 모습을 옛사람들은 '난장을 튼다'라고 표현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제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 4대 종목 중 하나인 난장트기 공개행사가 오는 12일 영광군 법성면 숲쟁이공원 부용교와 법성포 뉴타운 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난장트기는 단오 한 달 전인 음력 4월5일 행해지는 사전 행사이다.

법성포에선 예로부터 단오제를 앞두고 행사를 후원했던 보부상 조직 '백목전계'를 상징하는 쏘신과 패랭이·오색 천을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다.

현재는 지역사회 단체별로 상징 깃발을 설치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성공적인 단오제 개최를 기원하는 제전행사로 계승·발전했다.

난장트기 행사는 12일 오전 10시 서호농악대의 준비 구트로 시작된다. 이어 오전 11시엔 숲쟁이공원 부용교에서 원형난장기를 설치하고 보부상의 길 놀음이 법성포 뉴타운 문화광장까지 이어진다.

이후 오후 1시부터 기념식을 시작으로 제국, 고사, 난장공연 등 본격적인 난장트기 행사가 펼쳐진다.

50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광법성포단오제 본행사'는 오는 6월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법성포 뉴타운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4 영광 방문의 해를 맞이해 국가무형문화제 지정종목인 용왕제, 선유놀이,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해 당산제, 산신제, 민속놀이 경연대회, 씨름왕 대회, 단심놀이, 장포 머리감기, 장어잡기 등이 펼쳐진다.

이 외에도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다양한 볼거리와 각종 공연·체험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영광법성포단오제 시작을 알리는 난장트기 행사 모습. (영광군 제공)



지난 6일 나흘간 일정을 마무리한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에서 주민·관광객이 224m 길이 해조류 치유 김밥을 만들고 들어 보이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3만7000명 찾았다

3~6일 나흘간 청정바다 힐링

완도군이 지난 6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가 3만7000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완도군은 3~6일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열린 '2024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축제는 '잡고, 먹고, 치유하는 청정바다 힐링 페스티벌'을 주제로 열렸다.

어린이날 연휴 갖는 날씨에도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축제에서는 30종의 행사가 마련됐으며, '전통 바다낚시'와 '키치니아 고 완도', '해양치유 홍보관' 등이 인기를 끌었다.

전통 바다낚시는 해변공원 앞 해상 100m의 대형 낚시터에서 열렸다.

해양치유 홍보관에서는 해양치유센터 가상

현실(VR) 체험과 해양치유 제품을 선보였다.

축제장 인근 해양치유센터에는 지난 5일 하루에만 432명이 찾아 하루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키치니아 고 완도'에는 2000명의 어린이가 몰렸다.

'전통 노 짓기 대회'와 '정해 트로트 가요제'는 각 읍면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주민과 관광객은 길이 224m의 해조류 치유 김밥을 만들기도 했다.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등은 '청정완도 특산물마켓' '청해진미 푸드마켓'을 운영하며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완도군 관계자는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내년에는 더 풍성한 행사를 마련해 군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은조 기자-전남출판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물김 위판액 2284억 전국 1위... 지난해 2배 증가

역대 최대 위판가 기록

진도군은 2024년 물김 위판액이 2284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산업 진흥구역인 진도군은 김양식장 1만 6128ha에 23만5658척의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올 생산량은 지난해 9만5000t보다 10% 증가한 10만4378t을 기록했으며, 위판액 또한 1154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98% 증가한 2284억원으로 역대 최대 위판가를 경신했다.

이 같은 성과는 올해 김 수출량이 대폭 증가해 김 재고율 감소, 채묘(종자 불이기) 초기 낮은 껍질 발생률, 안정적인 해황의 영향 등 주요 3가지를 꼽았다.

냉수대가 흐르고 적조가 없는 청정 외해에서 생산되는 진도김은 미세알과 칼슘이 풍부하고 몸의 독소 배출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블랙푸드'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진도군은 좋은 품질의 김 생산과 안정적인 양식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 김 냉동망 시설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1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진도군이 김 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5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지속가능한 미래 김 산업 발전과 어민 소득증대에 힘썼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난 11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 센터' 건립으로 진도해역에 적합한 김 종자를 어업인들에게 보급했다"면서 "김 품질 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군 자원활용 창업자 모집

31일까지... 1500만원씩 지원

영암군이 오는 31일까지 '지역자원 활용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이런 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아이템으로 사업에 나서려는 창업자를 위해 15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지역의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에 선정돼 이번 사업에 나섰다.

8명의 예비창업자를 선정하며 아이디어 평가, 선진지 견학, 창업 교육 등 과정을 제공한다.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영암군민, 전업·예정자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학기당 150만원... 8학기까지

해남군이 다자녀가정의 교육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남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단 39세 미만 자녀만 지원되며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한다.

학자금 지원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이며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상 학생이 이미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자신이 납부한 학자금만 지원한다.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과 해당 대학교에 학자

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대학에 선지급되며 이미 납부한 학자금은 대학에서 다자녀가정에 반환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지원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자의 신분증과 학자금 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다자녀가정 자녀 106명에게 총 1억7300만원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학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신안군 햇빛아동수당 40만원→80만원...연간 23억원 지급

박우량 군수 "아이들 미래 지원"

신안군이 올해 상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햇빛아동수당은 2022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행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3월에 8개소 연합회를 결성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급했던 햇빛아동수당이 올해는 100% 증액돼 1인당 반기별 40만원,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

햇빛아동 장학적금이 신규 출시됨에 따라 햇빛연금을 포함한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69명 증가해 총 2888명이 혜택을 받는다.

장학적금 가입자는 1246명으로 가입률은 전체 아동수의 43%다.

적금을 포함한 상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액은 11억5500만원으로 연간 23억1000만원에 달한다.

김정대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햇빛아동수당을 통해 아동 복지 증진과 인구소멸



지난 3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4 햇빛아동수당 전달식'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정대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해 대비 수당이 2배 증가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신안 아동들의 건강

한 성장과 희망찬 미래를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ilee@kwangju.co.kr



HD현대삼호가 8일 호텔현대목포에서 연 '부모님 초청 효도잔치'에서 흥겨운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HD현대삼호 협력사 부모 등 초청 '효도잔치'

HD현대삼호 직원들이 8일 협력회사 직원 부모 등을 초청해 '효도잔치'를 벌였다.

이날 '부모님 초청 효도잔치'는 호텔현대목포에서 열렸다. 신현대 HD현대삼호 사장 등 회사 관계자 450여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조소소를 버스 관람하고 기념식, 공연 등에 참석했다.

이날 공연에는 목포시립무용단과 경연 예능 '미스트롯 3' 출연자 김소연씨가 무대를 꾸몄다.

청중들은 춤과 판소리, 대중가요가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를 즐겼다.

앞서 HD현대삼호는 지난 3일 목포·영암의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1530명에게 3000만원 상당 어린이날 선물을 전하기도 했다.

영암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는 박한규 HD현대삼호 상무와 목포·영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해수청, 11억 투입 어룡·죽도 등대 현대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남 어룡도와 진도 죽도 등대를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발광다이오드(LED) 등명기와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현대화된 등대로 개량한다고 8일 밝혔다.

어룡도등대(1910년 초 점등)는 해남군 땅끝마을 앞 해상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수심이 얕은 인근 도서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들의 갑갑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진도 죽도 죽도등대(1907년 초 점등)는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분기점으로 부산과 인천, 목포항을 오가는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개량되는 두 등대는 기존의 전구식 등명기를 LED식으로 교체해 효율을 높이는 한편 등명기 점소등을 비롯해 발전기, 장비실 온도 등 등



어룡도 등대.

대를 구성하는 장비와 환경이 24시간 운영센터에서 감시 제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목포해수청은 공사 기간 중 대체 등명기를 밝혀 항해자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